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대한 유아 연령 및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The Effects of Children's Age and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on the Social Morality of Young Children

이주연¹ 문예은²

Joo-Yeon Lee¹ Ye Eun Mun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children's age and their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on the social morality of young children.

Methods: The data were gathered from parents who had 3-5 year old children enrolled in daycare centers and from their daycare teachers. The parents answered questions about their children's socio-demographic background and the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the teachers rated children's social morality. The data from a total of 245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SPSS 25.0.

Results: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young children's morality score and convention score. Young children's morality scores were higher than their convention scores. Second, children's age was a significant influential factor on both their moral and conventional social morality. Third, father's care-discipline had the only impact on children's conventional social morality. That is, children's social morality was higher when their fathers gave them more care and guidance. Forth,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children's age and father's development-support on children's conventional social morality was found.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a differentiated approach is needed according to the types of childrearing involvement of fathers in order to improve children's social morality.

key words social morality,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children's age, interaction effect

* 본 논문은 2021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²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수료생
(e-mail : mye852@naver.com)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도덕성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범죄와 폭력, 학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덕성 회복과 바른 인성 확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손봉호, 2010).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적, 환경적 변화 역시 인간의 도

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인간중심 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가치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환경적 변화에 의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안(2021-2025)에서는 미래사회의 고도화된 기술 발전에 의해 AI가 인간 삶의 많은 영역을 대체할 것에 대비하여 사람만의 고유한 역량으로서 인성덕목의 함양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0). 또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현재의 발전이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은 미래를 위한 배려와 양보, 존중과 협력 등의 도덕적 덕목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타인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배려와 존중,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은 현세대는 물론 앞으로의 세대에게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윤갑정, 2021).

유아기는 인성 및 도덕성의 발달과 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Freud에 의하면 유아기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을 발달시키는 시기(Schaffer & Kipp, 2014 재인용)이며, Piaget는 유아기가 규칙, 질서 및 사회정의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순응하는 도덕성 발달의 시기라고 하였다(Piaget, 1932). 인성교육 역시 유아기에 교육과 학습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며(조난심 등, 2004), 이후 개인의 인생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Gestwicki, 2013). 이에 따라 국외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와 감정 등 정의적 요소를 포함하는 도덕적 민감성과 동기, 그리고 구체적인 도덕적 규범과 가치를 가르치는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이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윤영돈, 2012; 김은설, 2014).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기가 올바른 사회적 도덕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명시하기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을 포함시켰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이는 도덕성 발달 및 교육에서 대인관계적 요소를 강조하는 Gilligan(1982)과 Noddings(1984)의 배려윤리 관점을 내포하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관심과 배려, 협력 등의 도덕적 덕목이 유아기부터 길러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도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과 도덕성교육 강화의 사회적 요구 증가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도덕성 발달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도덕성은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가지는 사고와 행위 등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미한다(Kurtines & Gewirtz, 2004). 그러나 도덕적 사고와 추론, 도덕적 정서, 도덕적 행위 등 매우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향 및 학자에 따라 그 정의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도덕성 교육의 덕목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는, 인간의 품성, 됨됨이, 자질 등을 의미하는 인성의 개념(강선보 등, 2008)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실제로 인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성을 지적 인성, 도덕적 인성 및 시민적 인성과 같이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 복합적으로 살펴보거나(정창우, 2015), 인간다운 마음과 행동, 개인의 감성과 순응성, 적응성, 도덕성 등을 포괄하여 분석한 경우도 있다(윤소연, 2019). 이 외에도 인성을 협력, 배려, 존중, 나눔, 질서, 효 등과 같이 사회도덕적 관계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가치 및 행동으로 보기도 하였다(김치곤, 채영란, 2013; 박리나, 황혜익, 2017; 유연옥, 송서정, 2014; Athur, 2003; Berkowitz

& Grych, 2000). 도덕성과 인성이 유사동일 개념으로 이해되는 또 다른 경우로, 미국에서 사회도덕 교육을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의 용어로 총칭한다는 점(Nucci, 2000)과 특히 최근들어 미국의 도덕교육이 인성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Walker, 2020)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도덕성은 연구에 따라 개념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가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내 연구들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의 인성 또는 도덕성의 개념보다는 구체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사회도덕성’의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하기도 한다(이승원, 2012; 정금자, 박미라, 2013; 최순자, 2006). 사회도덕성이란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관계없이 본질적인 생명의 가치나 인간의 존엄성, 보편적 정의와 관련된 도덕적 영역과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고 사회적으로 원활히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관습과 규범을 의미하는 인습적 영역을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최순자, 2006). 사회도덕성의 조작적 정의는 Turiel(1983)의 사회적 영역이론 중 가치와 행위에 대한 자유재량 및 정서적 기준을 의미하는 개인적 영역을 제외하고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만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 도덕성을 도덕적 추론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상호작용으로 본 Kohlberg의 관점(Cengage Learning Gale, 2017)과 일치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의 도덕성과 사회성을 강조한 사회도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사회도덕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어떠한 변인들이 사회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크게 아동변인과 환경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아동변인으로는 유아의 성(권현조, 권정윤, 2018; 김현신, 우남희, 2000; 신나리, 오정순, 2015; Ford & Lowery, 1986; Friedman, Robinson, & Friedman, 1987)과 연령(권현조, 권정윤, 2018; 김현신, 우남희, 2000)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연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특성변인으로 연령에 주목하고자 한다. 유아의 도덕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동향분석 결과, 대다수의 연구는 만 5세를 대상으로 하였다(김신영, 곽승주, 2019; 임상도, 김재식, 2017). 이는 유아 도덕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어린 유아는 도덕적 이해력, 판단력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는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기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 5세 이전의 유아들도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Turiel, 1983), 어린 유아들도 도덕성과 관련된 의도가 담긴 행동들 간의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Bussey, 1992). 이는 사회도덕성 연구 시 대상 유아의 연령을 만 5세 이하로 확대하여 비교할 때 유아의 사회도덕성 발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사회도덕성은 유아의 추론능력 등 인지발달과 관련된다는 점에서(Martorell, Papalia, & Feldman, 2014),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인지적 성장이 사회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유아의 연령과 사회도덕성 간의 관계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연령이 높은 유아의 도덕성/인성 점수가 더 높다는 결과(권현조, 권정윤, 2018; 최미숙, 김희선, 이규림, 2009)와 달리 5세아 보다 4세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홍경선, 김영희, 2005)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일관적 연구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더불어 유아의 연령을 확대하여 만 3, 4, 5세의 사회도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부모의 특성을 들 수 있다. 관련 선행연

구들에서는 부모관련 변인으로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직업(박화윤, 오경숙, 박미경, 2010; 정금자, 박미라, 2013; Hwang, 2003), 어머니관련 변인으로 인성특성(이승원, 2012), 양육신념(박화윤 등, 2010), 양육태도(이승원, 2012; 이정규, 최순자, 2007; 필군동, 2015), 아버지 관련변인으로는 양육참여도(권현조, 권정윤, 2018; 홍영미, 2015), 의사소통유형(권현조, 권정윤, 2018) 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개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관련 변인에 연구의 초점을 맞췄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는 높은 도덕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다(이승원, 2012; 최미숙 등, 2009; 최순자, 2002; 홍경선, 김영희, 2005).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양육참여 또한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사회도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나(정금자, 박미라, 2013), 어머니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도덕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offman(1977)은 아버지부재가 아동의 낮은 도덕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연구들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판단 능력이 높게 나타나고(정현희, 최경순, 1992), 아버지가 자녀에게 인지·사회 발달을 지지해주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자녀와 긍정적이고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하는 등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자극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정금자, 박미라, 2013; 최순자, 2006). 특히 홍영미(2015)는 아버지 양육참여가 사회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였는데, 사회도덕성의 하위요인 중 도덕적 영역의 생명존엄성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정직, 난폭한 행동, 나누기 및 협조는 발달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습적 영역의 경우 질서와 예의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이, 규칙에서는 발달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권현조와 권정윤(2018)은 아버지가 놀이·문화지원에 대한 양육 참여를 많이 할수록 유아가 질서에 더 잘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그 방식이나 사회도덕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대한 단편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던 것과 차별화하여 사회도덕성의 영역 및 양육참여의 형태를 구분하고 연령과의 관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종합할 때, 본 연구는 유아의 발달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회도덕성을 연구의 주제로 선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그 영향력이 보고되지만 방향성에서 일관성이 없었던 유아의 연령변인에 대한 재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 연구들이 어머니 관련 변인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확장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유아연령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의해 유아의 사회도덕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도덕성 발달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도덕성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 사회도덕성의 경향은 어떠한가?

- 1-1) 유아 사회도덕성의 전반적 점수분포는 어떠한가?
- 1-2) 유아 사회도덕성의 영역별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연령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사회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1) 유아의 연령은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대해 주효과를 가지는가?
- 2-2)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대해 주효과를 가지는가?
- 2-3) 유아의 연령 및 아버지 양육참여는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대해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 및 전남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반 유아 24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유아의 부모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45)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만 3세	만 4세	만 5세	전체			만 3세	만 4세	만 5세	전체
유아 성	남아	43(55.8)	41(48.8)	41(48.8)	125(51.0)	연령	만 3세	77(31.4)	84(34.3)	84(34.3)	
	여아	34(44.2)	43(51.2)	43(51.2)	120(49.0)		만 4세	4(5.2)	4(4.8)	3(3.6)	11(4.5)
유아 출생 순위	첫째	39(50.6)	48(57.1)	40(47.6)	127(51.8)	가정 평균 소득	200이하	24(31.2)	35(41.7)	33(39.3)	92(37.6)
	둘째	28(36.4)	29(34.5)	26(31.0)	83(33.9)		201-400	35(45.4)	33(39.3)	36(42.9)	104(42.4)
	셋째이하	10(13.0)	7(8.3)	18(21.5)	35(14.3)		401-600	13(16.9)	12(14.3)	11(13.1)	36(14.7)
							601이상	8(10.4)	15(17.9)	20(23.8)	43(17.6)
모 연령	20대	6(7.8)	6(7.1)	3(3.6)	15(6.1)	모 학력	고졸	38(49.4)	37(44.0)	32(38.1)	107(43.7)
	30대	63(81.8)	62(73.8)	57(67.9)	182(74.3)		2년제졸	22(28.6)	24(28.6)	26(31.0)	72(29.4)
	40대	8(10.4)	15(17.9)	23(27.4)	46(18.8)		4년제졸	9(11.7)	5(6.0)	6(7.1)	20(8.2)
	50대	0(0.0)	0(0.0)	0(0.0)	0(0.0)		대학원졸	9(11.7)	8(9.5)	20(23.8)	37(15.1)
부 연령	20대	3(3.9)	2(2.4)	0(0.0)	5(3.0)	부 학력	고졸	29(37.7)	37(44.0)	30(35.7)	96(39.2)
	30대	47(61.0)	52(61.9)	40(47.6)	139(56.7)		2년제졸	31(40.3)	29(34.5)	26(31.0)	86(35.1)
	40대	27(35.1)	26(31.0)	41(48.8)	94(38.4)		4년제졸	8(10.4)	6(7.1)	8(9.5)	22(9.0)
	50대	0(0.0)	3(3.6)	0(0.0)	3(1.9)		대학원졸				

주. 결측값으로 인해 변인별 사례수 및 백분율 합에 차이가 있음.

연구대상 유아 전체를 중심으로 표 1을 설명하면, 먼저 성 비율의 경우 전체 245명 중 남아가 125명, 여아가 120명으로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만 3세반 유아가 77명(31.4%), 4세반 84명(34.3%), 5세반 84명(34.3%)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127명(51.8%)으로 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둘째인 경우 83명(33.9%), 셋째이하의 경우가 35명(14.3%)으로 나타나 대부분 첫째이거나 둘째아였다. 유아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8.65세

였으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6.10세였다. 연령을 세대로 구분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 30대가 56.7%(139명)로 과반이상을 차지하였고, 40대가 38.4%(94명)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어머니는 30대가 74.3%(182명)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아버지는 30와 40대, 어머니는 30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은 2년제대졸이 39.2%(9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년제대졸이 35.1%(86명)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2년제대졸이 43.7%(107명)로 가장 높았고, 4년제대졸이 29.4%(72명)로 나타나 아버지학력과 동일한 분포순위를 보였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401-600만원이 4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201-400만원이 37.6%였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 유아의 가정은 중산층이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사회도덕성

유아의 사회도덕성은 최순자(2006)가 개발한 사회도덕성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최순자(2006)는 아동의 도덕의식 발달에 관한 森重敏(1988)의 설문지와 일본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首藤敏元和 二宮克美(2002)의 질문지, 그리고 유아교사들과의 면담 자료를 기초로 일본과 한국아동의 사회도덕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회도덕성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해당 질문지에서 사회도덕성의 하위요인은 Turiel(1983)의 사회적 영역이론 모형의 도덕영역, 인습영역, 개인영역 중 개인영역을 제외한 도덕영역과 인습영역의 총 57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도덕영역은 시대·사회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생명의 존엄성, 정직, 난폭한 행동, 나누기 및 협조 등 4개의 2차적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인습영역은 질서, 규칙, 예의, 절약 등 4개의 2차적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도덕영역과 달리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회문화 집단 내의 구성원들 간 합의에 의해 규정되는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위요인별 각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생명의 존엄성은 ‘개미나 벌레가 교실 안에 들어와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정직은 ‘유치원·어린이집 물건을 아무 말 없이 가져간다.’, 난폭한 행동은 ‘친구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한다.’, 나누기 및 협조는 ‘만들기 활동을 할 때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준다.’가 있으며, 질서는 ‘바깥놀이를 할 때 차례를 지키며 놀이기구를 사용한다.’, 규칙은 ‘창틀에 올라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예의는 ‘도와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절약은 ‘물을 사용할 때 절약해서 사용한다.’가 있다. 이처럼 본 사회도덕성 질문지는 유아교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하에서 유아의 사회도덕성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교사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척도 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문항은 역채점 후 합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 대한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난폭행동의 경우도 점수가 높을수록 난폭행동을 덜 보여 비폭력성의 도덕적 행동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도덕영역이 .78, 인습영역이 .87이었다.

2) 아버지 양육참여

본 연구는 아버지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Snarey(1993)와 Palkovits(1997)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한 이영환, 이진숙 그리고 조복희(1999)의 생산적 아버지 노릇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양육참여요인 26문항과 양육책임감 요인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참여요인만을 사용하였다. 해당 요인은 발달적지지(발달지지; 11문항), 자녀돌보기 및 지도(돌봄지도; 9문항),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함께활동; 6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로 발달지지는 “내 남편은 자녀가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돌봄지도는 “내 남편은 자녀의 옷차림을 돌보아 준다.”, 함께활동은 “내 남편은 자녀와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한다.”가 있다. 원척도는 아버지가 응답하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응답하는 타인보고식 질문지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식 간에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오승아, 유준호, 2016)를 통해, 어머니 보고로 수집된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정보는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객관적일 가능성을 가진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발달적 지지가 .85, 자녀돌보기 및 지도가 .82,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이 .81이었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변인인 유아의 연령 변인 이외에 연구대상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을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유아의 성, 연령, 출생순위와 가정환경 변인 중 부모의 연령, 학력, 및 월평균 가정소득이 포함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유아의 부모 및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유아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정보와 아버지 양육참여에 관한 정보는 유아의 부모에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반면, 유아의 사회도덕성은 아버지 양육참여 정보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위해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사회도덕성 정보는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상황 하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정에서의 사회도덕성 판단보다는 어린이집이라는 보다 넓은 사회관계 내에서 판단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예측된 바, 함께 지켜야 하는 정해진 규칙이 있고 또래 및 교사와 생활하는 어린이집 상황에서의 사회도덕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IRB. 1040198-160715-HR-060-01)을 받은 후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만 3~5세반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유아평정 방법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교사에게 교사용 질문지와 부모용 질문지 4세트씩을 배부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교사를 통해 해당 반 유아 4명의 가정에 배부하여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교사 1인당 최대 유아 4명의 사회도덕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총 2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254가 회수되어 약 94%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아버지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와 부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45부의 자료를 연구를 위한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5.0(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으로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3~5세 유아들의 전반적인 사회도덕성을 살펴보고, 사회도덕성의 도덕영역과 인습영역 간 점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대한 유아의 연령 및 아버지 양육참여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 사회도덕성의 전반적인 경향

유아 사회도덕성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도덕성 전체 점수를 산출하였고 이와 함께 사회도덕성의 두 하위영역인 도덕영역과 인습영역 점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사회도덕성 전체 점수는 점수범위 1~4점 중 3.0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들의 사회도덕성에 대해 어린 이집 담임교사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사회도덕성 전체 점수를 유아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점수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중간 점수(2.5) 이상의 긍정적 보고 경향을 보였다.

표 2에서 도덕영역과 인습영역의 두 하위영역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 유아 전체의 도덕영역 점수($M=3.09, SD=.44$)가 인습영역 점수($M=3.01, SD=.4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aired $t=4.05, p<.001$). 연령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이러한 차이는 만 4세 유아집단에서 만 찾아볼 수 있었다. 비록 만 3세와 만 5세 집단에서 도덕영역과 인습영역 간의 점수 폭이 크지 않아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연령집단에서 도덕영역의 점수가 인습영역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질서, 규칙, 예의, 절약 등의 인습영역에 비해 생명존엄, 정직, 난폭행동, 나눔협조 등의 도덕영역에서 유아들이 더 바람직한 행동과 태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표 2. 유아의 사회도덕성 점수 (N = 245)

연령	M(SD)			Paired-t
	사회도덕성 전체	도덕영역	인습영역	
만 3세	3.17(.40)	3.19(.39)	3.14(.48)	1.46
만 4세	3.09(.44)	3.16(.44)	3.02(.49)	4.65***
만 5세	2.92(.34)	2.93(.42)	2.90(.31)	1.13
전체 유아	3.04(.43)	3.09(.44)	3.01(.44)	4.05***

*** $p < .001$.

2. 사회도덕성에 대한 유아 연령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대한 유아 연령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관련 변인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 파악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도덕성 전체 점수는 유아연령($r = -.21, p < .001$), 부연령($r = -.13, p < .05$), 부학력($r = .15, p < .05$) 및 아버지의 돌봄지도($r = .17, p < .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사회도덕성은 유아 연령 및 아버지 연령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아버지 학력 및 돌봄지도 점수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만, 도덕영역과 인습영역을 구분할 때 이러한 관계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도덕영역의 경우 유아연령, 모연령, 부학력, 돌봄지도와 상관을 보인 반면, 인습영역은 유아연령과 부학력, 돌봄지도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유아 성	유아 연령	출생 순위	모 연령	모 학력	부 연령	부 학력	가정 소득	발달 지지	돌봄 지도	함께 활동	도덕 영역	인습 영역
유아성	1												
유아연령	.06	1											
출생순위	.00	.09	1										
모연령	-.04	.22**	.48***	1									
모학력	-.01	-.10	-.07	.15*	1								
부연령	-.06	.21**	.37***	.63***	-.08	1							
부학력	.03	-.11	-.09	.20**	.59***	.00	1						
가정소득	-.13	-.04	.13*	.18**	.39***	.15*	.33***	1					
발달지지	-.00	-.03	-.18**	-.06	.15*	-.08	.20**	.15*	1				
돌봄지도	.00	-.07	-.13*	-.14*	.09	-.15*	.18**	.15*	.80***	1			
함께활동	-.08	-.10	-.18**	-.17**	.10	-.14**	.13	.16*	.75***	.69***	1		
도덕영역	.01	-.23***	-.10	-.13*	.09	-.12	.15*	-.01	.06	.14*	.03	1	
인습영역	.09	-.17**	-.13	-.06	.10	-.11	.14*	-.02	.11	.17**	.05	.75***	1
사회도덕성	.06	-.21**	-.13	-.10	.10	-.13*	.15*	-.01	.09	.17**	.04	.94***	.94***

* $p < .05$, ** $p < .01$, *** $p < .001$.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대한 유아 연령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잔차와 관련된 기본가정을 검정하였다. Durbin-Watson값의 경우 1.78~1.89로 2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Tolerance값은 .93~.99, VIF값은 1.00~1.08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의 경우, 1단계 회귀식에서는 아버지 관련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상관분석 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부연령과 부학력을 투입하였다. 도덕영역 점수와 상관을 보인 모연령의 경우, 부연령과 .63($p < .01$)의 다소 높은 상관을 보여 부연령만을 통제하였다. 2단계에는 독립변인인 유아의 연령과 아버지 양육참여변인을 투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는 유아연령×아버지양육참여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함으로써 상호작용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1) 사회도덕성 도덕영역에 대한 유아 연령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유아의 사회도덕성 중 도덕영역에 대한 유아 연령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발달지지, 양육참여, 함께활동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아연령과 아버지의 발달지지가 도덕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표 5에 의하면, 1단계 통제변인이 투입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67, p<.01$). 유아의 도덕영역은 아버지의 학력($\beta=.15, p<.05$)이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유아연령과 발달지지 변인이 투입된 두 번째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F=5.32, p<.001$), 두 변인 중 유아연령($\beta=-.22, p<.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를 보여 연령이 낮을수록 생명의 존엄성, 정직, 난폭한 행동, 나누기 및 협조와 관련된 도덕영역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3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4.34, p<.001$),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유아연령과 부의 발달지지가 유아의 사회도덕성 도덕영역에 미치는 영향 (N = 245)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i>t</i>	β	<i>t</i>	β	<i>t</i>
부연령	-.12	-1.92	-.08	-1.18	-.08	-1.18
부학력	.15	2.38*	.12	1.92	.12	1.93
유아연령			-.22	-3.39**	-.22	-3.40**
발달지지			.02	.35	.02	.37
유아연령×발달지지					-.04	-.69
R2	.04*		.08		.08	
$\Delta R2$.04*		.00	
F	4.67**		5.32***		4.34***	

* $p<.05$, ** $p<.01$, *** $p<.001$.

유아의 도덕영역에 대한 연령과 아버지 돌봄지도의 영향력은 앞서 설명한 발달지도 결과와 유사하게 회귀모형2에서 돌봄지도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아연령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회귀모형3에서 역시 유아연령($\beta=-.21, p<.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표 6 참조).

표 6. 유아연령과 부의 돌봄지도가 유아의 사회도덕성 도덕영역에 미치는 영향 (N = 245)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i>t</i>	β	<i>t</i>	β	<i>t</i>
부연령	-.12	-1.92	-.06	-.99	-.06	-.97
부학력	.15	2.38*	.11	1.75	.11	1.75
유아연령			-.21	-3.37**	-.21	-3.35**
돌봄지도			.09	1.46	.09	1.47
유아연령×돌봄지도					-.01	-.20

표 6. 계속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i>t</i>	β	<i>t</i>	β	<i>t</i>
<i>R</i> ²	.04*		.09		.09	
ΔR^2			.05*		.00	
<i>F</i>	4.67**		5.87***		4.68***	

p* < .05, *p* < .01, ****p* < .001.

도덕영역에 대한 연령과 아버지 함께활동의 영향력을 분석한 표 7에 의하면, 모든 변인이 투입된 마지막 회귀모형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통제변인인 부학력($\beta = .13, p < .05$)과 유아연령($\beta = -.22, p < .01$)의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7. 유아연령과 부의 함께활동이 유아의 사회도덕성 도덕영역에 미치는 영향 (N = 245)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i>t</i>	β	<i>t</i>	β	<i>t</i>
부연령	-.12	-1.92	-.08	-1.24	-.08	-1.24
부학력	.15	2.38*	.13	2.05*	.13	2.05*
유아연령			-.22	-3.40**	-.22	-3.39**
함께활동			-.02	-.31	-.02	-.31
유아연령×함께활동					-.01	-.18
<i>R</i> ²	.04*		.08		.08	
ΔR^2			.04*		.00	
<i>F</i>	4.67**		5.32***		4.24**	

p* < .05, *p* < .01, ****p* < .001.

2) 사회도덕성 인습영역에 대한 유아 연령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유아의 사회도덕성 중 질서, 규칙, 예의, 절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습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연령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 표 9, 표 10에 제시하였다. 유아연령 및 아버지 발달지지의 영향력을 분석한 표 8에 의하면, 통제변인이 투입된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3.89, p < .05$), 이 때 부학력($\beta = .14, p < .05$)만이 인습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들은 질서, 규칙, 예의, 절약의 인습영역의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통제변인과 독립변인들이 모두 투입된 모형3의 결과를 보면 부학력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지고 유아연령의 주효과($\beta = -.3145, p < .01$)와 유아연령×발달지지의 상호작용효과($\beta = -2.53,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유아의 사회도덕성 중 인습영역의 점수가 낮았는데, 특히 연령이 높으면서 아버지의 발달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 인습영역 점수가 더욱 낮음을 알 수 있다(그림1).

표 8. 유아연령과 부의 발달지지가 유아의 사회도덕성 인습영역에 미치는 영향 (N = 245)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부연령	-.11	-1.74	-.06	-.98	-.06	-.99
부학력	.14	2.19*	.10	1.57	.10	1.63
유아연령			-.20	-3.08**	-.20	-3.15**
발달지지			.08	1.33	.09	1.42
유아연령×발달지지					-.16	-2.53*
R2	.03*		.07		.10	
$\Delta R2$.04**		.02*	
F	3.89*		4.79**		5.2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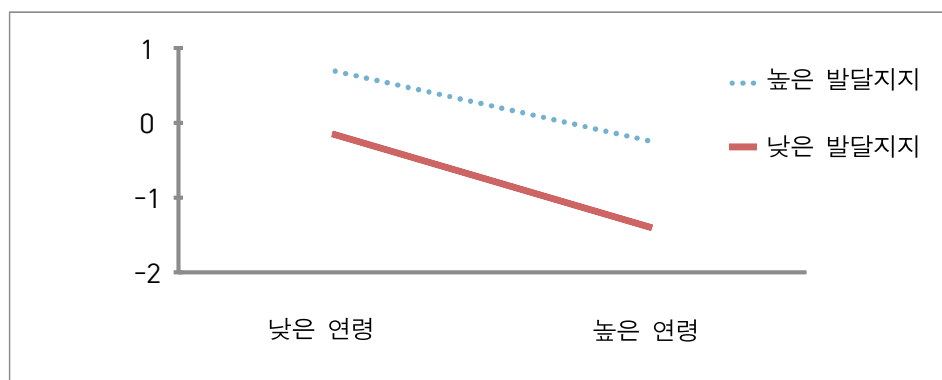


그림 1. 유아연령 및 아버지 발달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유아연령과 돌봄지도가 인습영역에 미치는 영향(표 9)은, 모형3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연령($\beta = -2.98$, $p < .01$)과 돌봄지도($\beta = 2.27$, $p < .05$)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3에 투입된 변인들은 인습영역 분산의 10%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돌봄지도가 많을수록 유아의 인습영역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9. 유아연령과 부의 돌봄지도가 유아의 사회도덕성 인습영역에 미치는 영향 (N = 245)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부연령	-.11	-1.74	-.05	-.77	-.04	-.66
부학력	.14	2.19*	.09	1.47	.10	1.52
유아연령			-.19	-3.03**	-.19	-2.98**
돌봄지도			.14	2.12*	.14	2.27*

표 9. 계속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유아연령×돌봄지도					-.12	-1.88
R^2	.03*		.08		.10	
ΔR^2			.05**		.01*	
F	3.89*		5.53***		5.18***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표 10에서 인습영역에 대한 유아연령과 함께활동의 영향력은 유아연령의 주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04$, $p < .01$).

표 10. 유아연령과 부의 함께활동이 유아의 사회도덕성 인습영역에 미치는 영향 (N = 245)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부연령	-.11	-1.74	-.07	-1.08	-.07	-1.09
부학력	.14	2.19*	.12	1.84	.12	1.86
유아연령			-.20	-3.04**	-.20	-3.04**
함께활동			.00	.03	.00	.01
유아연령×함께활동					-.06	-1.00
R^2	.03*		.07		.07	
ΔR^2			.04*		.00	
F	3.89*		4.32**		3.66**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심리사회적 발달특성으로 인성을 들 수 있다. 인성영역 중 특히 사회도덕성은 과거에는 물론 현대의 산업화, 기계화 사회에서 더욱 요구되는 인간 고유의 특성으로 이해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인지, 정서사회발달에서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사회도덕성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유아특성과 부모의 양육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연령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광주 및 전남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반 유아 25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와 담임교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사회도덕성의 전반적인 경향은 가능한 점수범위 1~4점 중 3.04점을 보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점수를 도덕영역과 인습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도덕영역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만 3~5세 유아들은 질서, 규칙, 예의, 절약 등의 인습영역 보다는 생명존엄, 정직, 난폭행동, 나눔협조 등의 도덕영역에서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시대나 사회적 상황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여겨지는 도덕적 영역은 보다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유아들에게 더 중요하게 전달되고 또 개발하였을 수 있는 반면,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통합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속으로서의 인습적 영역은 도덕적 영역에 비해 덜 강조되거나 혹은 순차적으로 강조되고 개발되었을 가능성에서 두 영역의 점수 차이를 해석해볼 수 있겠다. 특히 절약과 같은 요인은 환경에 대한 이해나 배려 등의 고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리과정 프로그램 중 ‘절약’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육주체는 대개 어린 연령보다는 만 5세반 활동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절약 요인이 포함된 인습영역의 점수가 낮았을 가능성에 대한 본 해석에 논리적 타당성을 제공한다.

둘째,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대한 유아 연령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아 연령은 사회도덕성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낸 반면, 아버지 양육참여는 사회도덕성의 영역에 따라 그리고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위요인에 따라 주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었다. 사회도덕성 중 도덕영역의 경우,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위요인인 발달지지, 돌봄지도, 함께활동은 모두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사회도덕성의 또 다른 영역인 인습영역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위요인 중 돌봄지도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아버지가 돌봄지도를 많이 할수록 인습영역의 점수가 높았다.

먼저, 유아연령의 주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사회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전반적인 경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 사회도덕성이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의 방향성에 있어 기존연구들에 차이가 있는 만큼, 영향력 여부 보다는 방향성의 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도덕성의 도덕영역과 인습영역에 대해 연령이 부적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도덕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권현조, 권정윤, 2018; 최미숙 등, 2009)과는 상반되는 반면, 연령이 어릴수록 더 경직된 도덕적 판단에 따라 높은 도덕성을 보인다는 홍경선과 김영희(2005)의 결과를 지지한다. 사회도덕성에 대한 유아 연령의 부적 영향력을 아동의 인지발달 및 도덕적 추론에 관한 Piaget(1932)의 이론을 토대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Piaget(1932)는 아동의 연령범위에 따라 도덕성 발달단계를 전도덕성 단계, 타율적 도덕성 단계,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구분하였다. 2세~7세경의 전조작기에 나타나는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유아의 도덕적 추론의 특성은 타율성과 도덕적 절대주의로 요약된다. 이 시기 유아들은 성인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도덕적 행동의 옳고 그름을 상황이나 의도 등과는 무관하게 행위의 객관적인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한다. 규칙은 불변적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 시기의 도덕성은 제약의 도덕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유아기의 아동이 타율적 도덕성의 특성을 보이는 것은 전조작기 사고의 대표적인 특징인 자아중심성과 관련된다. 즉, 유아는 도덕적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덜 발달함에 따라 경직된 도덕적 판단 및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Martorell

et al., 2014). 반면, 7세~11세경의 구체적 조작기는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로, 이 시기의 도덕적 추론은 자율성과 도덕적 상대주의로 대표된다.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아동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위해 행위의 결과와 함께 의도 및 동기를 고려하며, 규칙이나 규범 역시 상황에 따라 혹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의 도덕성은 협력의 도덕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Piaget의 인지발달 및 도덕적 추론에 대한 단계 이론을 본 연구의 논의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을 비판하는 이후 경험적 연구들은 인지적 특성이 나타나는 아동의 연령에 주목한다(Bjorklund & Causey, 2018; Schaffer & Kipp, 2014). 즉,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4~5세의 유아들도 타인의 관점이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탈중심화의 경향을 보이는 등 Piaget가 제시한 구체적인 연령보다 실제로 더 이른 나이에 다음 단계의 인지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구체적 조작기인 학령기 아동에게 나타난다고 설명한 자율적 도덕성 역시 유아기 후반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만 3세에 비해 만 5세 유아들의 사회도덕성 점수가 낮았던 것은 5세 유아들이 도덕적 상대주의에 의한 판단과 행동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만 3세 아동은 어린이집에서의 규칙이 교사나 성인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도덕적 타율성 및 절대주의에 입각한 판단 및 행동을 보이는 반면, 만 5세 유아는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상황이나 동기 등에 따라 규칙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여 친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규칙을 바꾸거나 가끔은 규칙을 어기는 등의 자율성과 상대주의적 도덕성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Piaget의 도덕발달 단계는 연령에 따른 도덕적 추론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행위에서의 도덕성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아나 아동에 비해 일반적으로 성인의 도덕적 추론 능력은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이해되지만, 이는 모든 성인들이 유아나 아동에 비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만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만 3세에 비해 만 5세 아동은 더 융통적인 도덕적 추론 단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만 5세 아동은 도덕적 상대주의가 가능해진 반면 아직 성인수준의 사회적 경험이나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사고나 행위에서의 융통성이 제한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즉, 도덕적 상대주의나 자율성이 거짓말이나 무질서 등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합리화 내지 변명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도덕성 중 정직을 예로 들면, 더 어린 유아들은 선과 악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특성으로 인해 남을 속이는 행위는 악하다고 규정하여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 반면 자율적 도덕성 단계의 유아들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도 경우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는 융통적 사고를 통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사회도덕성 문항들을 살펴보면, 도덕적 행동의 동기나 배경,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정직, 협조, 질서, 절약 등 행위 자체의 유무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연령에 따라 사회도덕성 점수가 낮아진 것은 도덕적 사고의 융통성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행동의 유연화 결과일 수도 있다.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대한 추후 연구에서는 도덕적 추론과 행동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아의 사회도덕성과 관련된 사고능력과 도덕적 행동(수행)을 구분하여 측정·비

교하거나, 사회도덕성 질문에서 동기나 의도를 포함한 상황별 평가를 한다면 유아의 도덕적 사고의 융통성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도덕적 행동에 유연화 및 다양화가 나타나는지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버지 양육참여의 주효과는 인습영역에 대해 돌봄지도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유아 자녀를 직접 돌보고 지도하는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유아들은 질서, 규칙, 예의, 절약 등의 인습영역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 이는 유아의 발달을 지원해주는 역할이나 유아와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 보다 자녀를 돌보고 지도하면서 직접 훈육하는 것이 유아의 인습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자녀의 사회도덕성에 미치는 정도가 다름을 보여주며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전반적인 사회도덕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정금자, 박미나, 2013; 최순자, 2006)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반면, 인습영역에서만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력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도덕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보고한 홍영미(2015)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와 달리 홍영미(2015) 연구는 도덕영역과 인습영역 내의 8개 하위요인에 따라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력을 각각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도덕성 중 특히 인습영역은 공동체 생활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행동양식과 가치 및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유아에게 그러한 도덕적 가치가 전달되는 방식은 아버지의 발달지도나 아버지와 활동참여 보다는 직접적인 육아와 지도가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 양육참여 하위요인들 중 돌봄지도만이 인습영역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양육인식을 조사한 박선정, 고가연 그리고 최은영(2015)에 의하면 아버지들은 자녀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인식한다. 이를 근거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직접적인 돌봄지도를 통해 자녀에게 사회도덕적 가치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사회도덕성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지도할 때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회도덕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습영역에 대한 연령×발달지지의 상호작용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상호작용의 경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습영역의 점수가 낮았는데 특히 유아의 연령이 높으면서 아버지의 발달지지가 약한 경우 현저하게 낮은 인습영역 점수를 보였다. 이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사회도덕성의 변화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만 5세 유아의 아버지들이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아버지의 발달적 지원이 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해당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회도덕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사회도덕성은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평정하였다. 사회도덕성은 더불어 사는 공동

체 생활에서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교사뿐 아니라 부모에 의한 평가를 함께 수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낮은 사회도덕성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령에 따른 사회도덕성 점수의 감소 이유를 밝히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도덕적 사고와 행동을 구분하고 연령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덕적 사고, 판단능력 등은 성숙하고 성장하나 이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고의 융통성, 도덕적 상대주의 등에 의해 사회도덕적 행동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연령 변인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교사에 의한 사회도덕성 평가는 유아의 행동, 태도 등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도덕적 가치나 사고수준이 아닌 행동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도덕성의 조작적 정의를 다양화하여 유아의 사회도덕적 가치와 행동을 모두 포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만3~5세 유아였다는 점에서 연령증가의 폭이 좁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아동의 연령을 확대하여 조사한다면 연령증가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력 변화 가능성을 자세히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아동의 사회도덕성이 실제로는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회도덕성 연구에 다양한 시각과 제안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유아연령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정, 김영래, 고미숙 (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연구. *교육문제연구*, 30, 1-38.
- 교육부 (2020. 9).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안)[2021~2025]**.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463>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발간등록번호:11-1342000-000522-01)**. I-누리 웹사이트:file:///C:/Users/hyobi/Downloads/%EB%88%84%EB%A6%AC%EA%B3%BC%EC%A0%95(%ED%95%B4%EC%84%A4%EC%84%9C)-%ED%99%95%EC%9D%B8%EC%9A%A9.pdf에서 2021년 08월 10일 인출
- 권현조, 권정윤 (2018. 1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의사소통유형이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2018년 추계정기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서울.
- 김신영, 광승주 (2019). 유아 도덕성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 연구동향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 23(6), 177-200. doi:10.32349/ECERR.2019.12.23.6.177
- 김치곤, 채영란 (2013). 유아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연구동향. **유아교육학논집**, 17(6), 305-333.
- 김현신, 우남희 (2000). 유아의 사회적 행동 발달과 부모의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21(1), 109-120.
- 박리나, 황해익 (2017). 유아인성 및 인성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과 과제. **유아교육연구**, 37(4), 7-32. doi:10.18023/kjece.2017.37.4.001
- 박선정, 고가연, 최은영 (2015). 유아기 아동을 둔 아버지의 양육인식에 관한 내용분석.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1(2), 91-97. doi:10.4094/chnr.2015.21.2.91
- 박화운, 오경숙, 박미경 (2010). 유아의 도덕적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60, 63-83.
- 손봉호 (2010.12). **인성교육의 철학적 기초**.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010년 동계전국학술대회 논문, 서울.
- 신나리, 오정순 (2015).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한 유아 인성 발달 영향 요인 연구: 교사 정서적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59-85. doi:10.14698/jkce.2015.11.2.059
- 오승아, 유준호 (2016).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부모의 인식 비교와 관련 변인 연구. **아동교육**, 25(3), 229-246. doi:10.17643/KJCE.2016.25.3.13
- 유연옥, 송서정 (2014). 유아의 연령별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연구경향. **사고개발**, 10(3), 87-103.
- 윤갑정 (2021). 유아 인성교육프로그램 연구동향과 과제: 도덕적·시민적 인성의 조화. **인문사회** 21, 12(3), 1675-1690. doi:10.22143/HSS21.12.3.117
- 윤소연 (2019). 신체활동 시 또래 간 갈등해결 중심 유아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 279-290. doi:10.35873/ajmahs.2019.9.1.028
- 윤영돈 (2012).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본 내러티브와 인성교육.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19-44.
- 이승원 (2012). 어머니의 인성특성, 양육태도 및 유아의 사회도덕성 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 (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노릇: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1-11.
- 김은설 (20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4, 1-22.
- 이정규, 최순자 (2007).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아동교육**, 16(2), 145-158.
- 임상도, 김재식 (2017). 유아도덕교육 관련 연구논문에 대한 동향 분석: 학회지 중심으로. **아동교육**, 26(2), 271-293. doi:10.17643/KJCE.2017.26.2.14
- 정금자, 박미라 (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0, 43-64.
- 정창우 (2015).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경기: 교육과학사.
- 정현희,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판단 능력. **아동학회지**,

- 13(1), 38-51.
- 조난심, 문용린, 이명준, 김현수, 김현지, 이우용 (2004. 4). **인성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연구보고 CRC 2004-4-14)**. <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30075&s=kice&m=030109>에서 2021년 8월 7일 인출
- 최미숙, 김희선, 이규림 (2009).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의와 배려 도덕성 발달 비교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1), 339-360.
- 최순자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만3세에서 6세아의 도덕적 행동의 검토. **교육심리연구**, 16(3), 197-219.
- 최순자 (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도덕성 관계: 한국과 일본의 비교.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필군동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도덕적 행동에 관한 한·중 비교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선, 김영희 (2005).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논총**, 9(1), 1-16.
- 홍영미 (201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首藤敏元, 二宮克美 (2002). 幼児と母親のつくりだす日常の社会道徳的文脈. **埼玉大学紀要教育学部 (教育科学)**, 51(1), 29-39.
- 森重敏 (1988). 幼児における道徳意識の發達に關する調査研究. **創價大學教育學論集**, 24, 61-101.
- Athur, J. (2003). *Education with character*. Abingdon-on-Thames, England: Routledge.
- Berkowitz, M. W., & Grych, J. H. (2000). Early character development and education.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1, 55-72. doi:10.1207/s15566935eed1101_4
- Bjorklund, D. E., & Causey, K. B. (2018). *Children's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and individual differences (6th ed.)*. Thousand Oaks, CA: Sage.
- Bussey, K. (1992). Lying and truthfulness: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and evaluative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3(1), 129-137. doi:10.1111/j.1467-8624.1992.tb03601.x
- Cengage Learning Gale (2017). *A study guide for psychologists and their theories for students: Lawrence Kohlberg*. Farmington Hills, MI: Cengage Learning Gale.
- Ford, M. R., & Lowery, C. R. (1986). Gender differences in moral reasoning: A comparison of the use of justice and care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777-783. doi:10.1037/0022-3514.50.4.777
- Friedman, W. J., Robinson, A. B., & Friedman, B. L. (1987). Sex differences in moral judgements? A test of Gilligan's theory. *Psychology of Women's Quarterly*, 11(1), 37-46. doi:10.1111/j.1471-6402.1987.tb00772.x
- Gestwicki, C. (2013).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Curriculum and development in early education (5thed.)*. Albany, NY: Delmar Pub.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wang, H. W. (2003). Family factors and th mor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2), 35-49.
- Hoffman, M. L. (1977). Sex difference in empathy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84(4), 712-722. doi:10.2307/1131002
- Kurtines, W. M., & Gewirtz, J. L. (2004).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문용린 옮김). 서울: 학지사(원판 1995).
-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ucci, L. P. (2000). Preface to the special issue: Early education for moral developmen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1(1), 5-8. doi:10.1207/s15566935eed1101_1
- Martorell, G., Papalia, D. E., & Feldman, R. D. (2014). *A child's world: Infancy through adolescence*. NY: McGraw Hill.
- Palkovitz, R. (1997). Reconstructing 'involvement': Expanding conceptualizations of men's caring in contemporary families. In A. J. Hawkins, & D. C. Dollahite (Eds.), *Generative fathering: beyond deficit perspectives* (pp. 200-216). Thousand Oaks, CA: Sage.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Franklin Classics.
- Schaffer, D. R., & Kipp, K. (2014). *Developmental psychology (9th Ed.)*. Belmont, CA: Wadsworth.
- Snarey, J. R. (1993). *How fathers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A four-decade stud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New York: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 Walker, L. J. (2020). The character of character: The 2019 Kohlberg memorial lecture. *Journal of Moral Education*, 49(4), 381-395. doi:10.1080/03057240.2019.1698415

논문투고: 21.08.15
수정원고접수: 21.09.17
최종게재결정: 21.10.08